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공통된 맥락입니다.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고로 (빌립보서 1:18-19), 29 이렇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서 2:29),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10). 서신서 전체가 찬양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본문구절에서 기뻐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변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얼굴을 보이는 것이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4),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서 2:19), 24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24), 29 이렇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서 2:29), 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1),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1),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2),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10).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 분 홀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분께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의 사랑은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3-4).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삶을 가져다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게 빛어 가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로, 심지어 마귀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하고 깊은 진리의 기초입니다! 21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 성호(그의 거룩한 이름)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3:21). 기뻐할 이유는 더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33:4). 기뻐할 이유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듯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셨으며 또

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전 생애를 굳게 붙드시며 우리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품으시고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첫 시작은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듯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6:3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견고하지 않은데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이사야 26:4를 함께 보겠습니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은 영원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11).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진리가 의미하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위대한 구원을 삶속에서 기억하고 사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